

강진 K팝 공연·장흥댐 스카이워크·월출산스테이션 ‘불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50개 사업 심사...8개 사업 재검토·반려 고흥 풍양면 청사 건립·해남 우수영유스호텔 조성 등 42건 추진

강진군이 추진하려던 K-POP 콘서트 개최 계획과 장흥군이 장흥댐 일대에 스카이워크를 만들거나 월출산 일대에 사계절 관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불발’됐다. 구체적 프로그램조차 부재하고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객관적 수요 분석 등이 미흡해 적정성 분석을 거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다만,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2023 목포항구버스킹’ 공연과 ‘2023 고흥 유자석류축제’ 등은 ‘조건부’로 추진토록 해 탄

력을 받게 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22개 사·군이 제출한 50개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 8개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이 미흡하다며 보완해 재상정토록 재검토·반려 조치를 내렸다.

우선, 강진군이 오는 10월께 계획중인 ‘K-POP 콘서트’의 경우 준비 6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면서 ▲구체적 프로그램 부재 ▲행사장 내·외부 안전 대책 수립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 심사위원회는 행사 개최에 대한 계량화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시하고 강화된 행사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장흥군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군비 40억원에 도비 40억원을 더해 유치면 일대에 출렁다리(스카이워크·길이 310m, 폭 2m)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반려’ 처분을 받았다.

8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도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없는 등 타당성·구체성이 미흡하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전남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자연산경유역환경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구체

적 사업비 산출 근거,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하라며 ‘반려’ 했다.

영암에 오는 2025년까지 도비 84억원 등 190억원을 투입해 체험형 관광시설(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사계절썰매장)이 들어서는 ‘월출산스테이션 F’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객관적 수요를 토대로 수치 전망을 재분석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재심사를 받는 게 필요하며 ‘반려’ 조치됐다.

나주시가 죽림동 일대에 199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아트스페이스 조성사업과 나주 읍성권 일대에 국비 50억원을 받아 1.8km 길이의 한국형 정원길을 조성하겠다는 ‘한국형 정원길 조성사업’도 각각 재검토, 반려 판단을 받았

다.

화순군의 능주 역사문화도시 거점공간 개발사업(재검토), 화순군 축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반려), 여수시의 다목적 정화운반선 대체건조사업(반려) 등도 사업 보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외 고흥 풍양면 청사건립공사(53억), 2023 한중일 e스포츠대회(여수 11억), 제 1회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여수 3억), 고흥 유자석류축제(10억), 제 14회 고흥 우수항공축제(10억), 해남 우수영유스호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150억) 사업 등 42건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내거나 조건을 달아 추진토록 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더위 잊은 ‘과학캠프’ 22일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여름방학 아동 과학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융합형 프로그램 공룡친구들의 화산섬 탈출 모형을 만들고 있다. 북구와 국립광주과학관은 아동들에게 천문대 관람과 과학 융합형 프로그램 등 과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4905가구 ‘삶의 만족도’ 조사

다음달 7일까지 소득·주거·복지 등 70개 항목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23일부터 9월 7일까지 2023 광주시 사회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 사회조사는 1999년부터 부문별 2년 주기로 하고 있다.

시민의 주관적 인식 상태를 조사,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심층 면접조사이다.

올해 사회조사는 삶에 대한 만족, 소득·소비, 주거·교통, 노동, 교육, 문화·여가, 복지, 광주시 특성 등 8개 부문 70개 항목이다.

세부 조사항목은 최근 생활비 지출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 지역교육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겪는 어려움, 정부·사회단체로부터 받고싶은 복지서비스, 평균

여가시간, 광주시 대표명소 등 다양한 측면의 시민 생각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광주지역 표본 4905가구의 15세 이상 거주 가구원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이며, 부재 또는 응답자 요청때 응답자 자기기입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사결과는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조사는 환경변화에 따른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미래발전전략 등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의미있는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원이 사회조사를 위해 가구 방문때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도민 수혜·미래 사업 국고 확보 나서달라”

전남도 실국장 정책회의...정부 건축 재정 기초 대응 마련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 건축 재정 기초에 대응해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하되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지역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 사업은 오히려 증액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막바지 국고 확보에 온 힘을 쏟으면서 건축 재정에 대비해 비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도민 수혜사업과 미래전략사업은 예산이 감축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곳은 줄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그동안 1700억 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축해둔 상태다. 이 기금을 활용해 필수적인 예산은 줄이지 말고 오히려 늘리라는 의미다.

김 지사는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끝나가고 있으므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말고 국고 확보활동에 나서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풍력발전

보전 촉진 특별법’,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중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등 현안 법안 통과에도 적극 나서실 것”을 주문했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 노력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대 활성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 외국인 학생을 대거 유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30만명 유치 목표를 밝힌 것에 적극 대응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대학 경쟁력도 높여도록 하자”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역 식민잔재 도민 제안 받는다

누리집서 다음달 22일까지...청산사업 기초자료 활용

전남도가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라남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식민잔재에 대한 도민 제안을 받는다.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까지 추진하는 ‘전남 식민잔재 도민 제안’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응답 항목은 제안자가 생각하는 ▲전남지역 식민잔재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나 배경 등이다. 제안·조사 결과는 전남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사업 정보 공유와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4월 개최한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참여 위원들은 ‘식

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 수행기관 조사와 함께 도민 제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도민 제안은 도내 곳곳에 있는 식민잔재의 기초조사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용역 수행기관과 분석해 목록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4년 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청산작업과, 도민·학생의 역사 문화 교육자료 및 박물관 전시관 등과 연계한 지역 역사관광 콘텐츠 활용 등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